

A scenic photograph of a sunset over a wide river.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, casting a warm orange and yellow glow across the sky and reflecting on the water. In the background, there are dark silhouettes of mountains. The foreground shows the dark silhouette of a hillside with some sparse vegetation.

MB정권 “4대강 살리기” 사업의 진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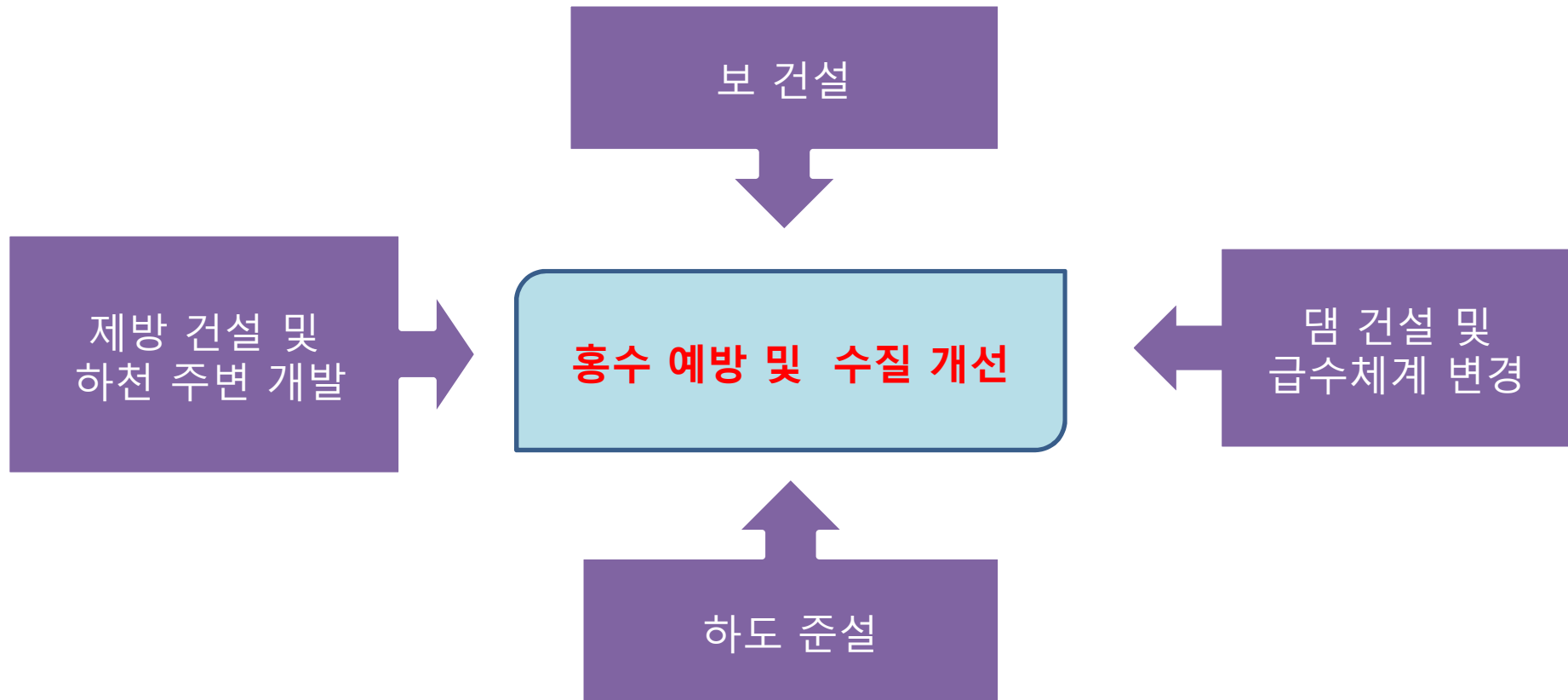
2010.03

한지원(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사무국장/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)

- “4대강 살리기 사업” 이란?
- 워터 쇼크?
 - 기후 변화와 한반도 물 환경
- 죽이는 데 3년, 되살리는 데 300년
 -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
- MB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- “대운하”
 -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유사점과 차이점
- 노동자 주머니에서 투기꾼들의 금고로
 -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노동자 소득과 자산가 소득 득실



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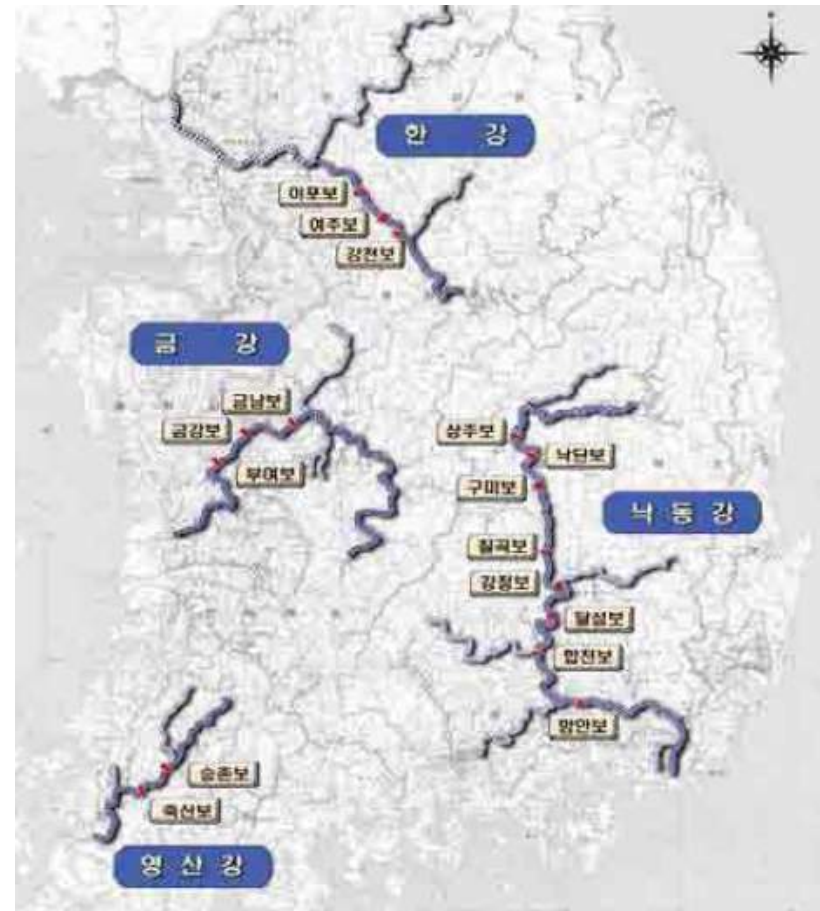


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?

- 보(작은 댐) 건설로 4대강 저장 수량을 높임.
 - 총 16개 보 건설. 한강 3개, 금강 3개, 낙동강 8개, 영산강 2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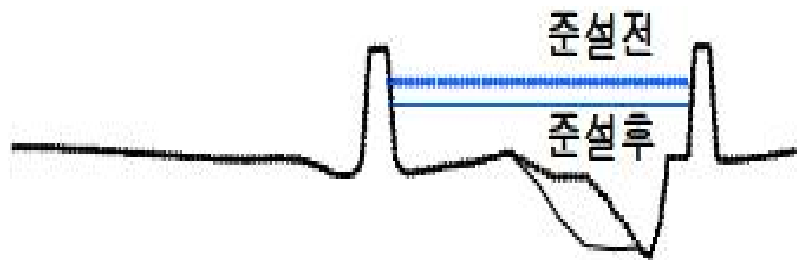


낙동강 함안보



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?

- 하도 준설(강바닥 흙을 파냄)로 수량 증대 및 안정적 수심 확보
 - 총 690Km 구간에서 5억7천m³ 에 이름. (경부고속도로에 10M 높이로 흙을 쌓아도 남는 양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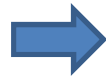
<예시 : 낙동강 감천 합류부>



낙동강에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준설선

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?

- 제방을 건설하여 홍수를 예방하고, 강 주변 경관을 정비
 - 제방 보강 620Km, 자전거 도로 1,728Km



인공 제방과
자전거 도로
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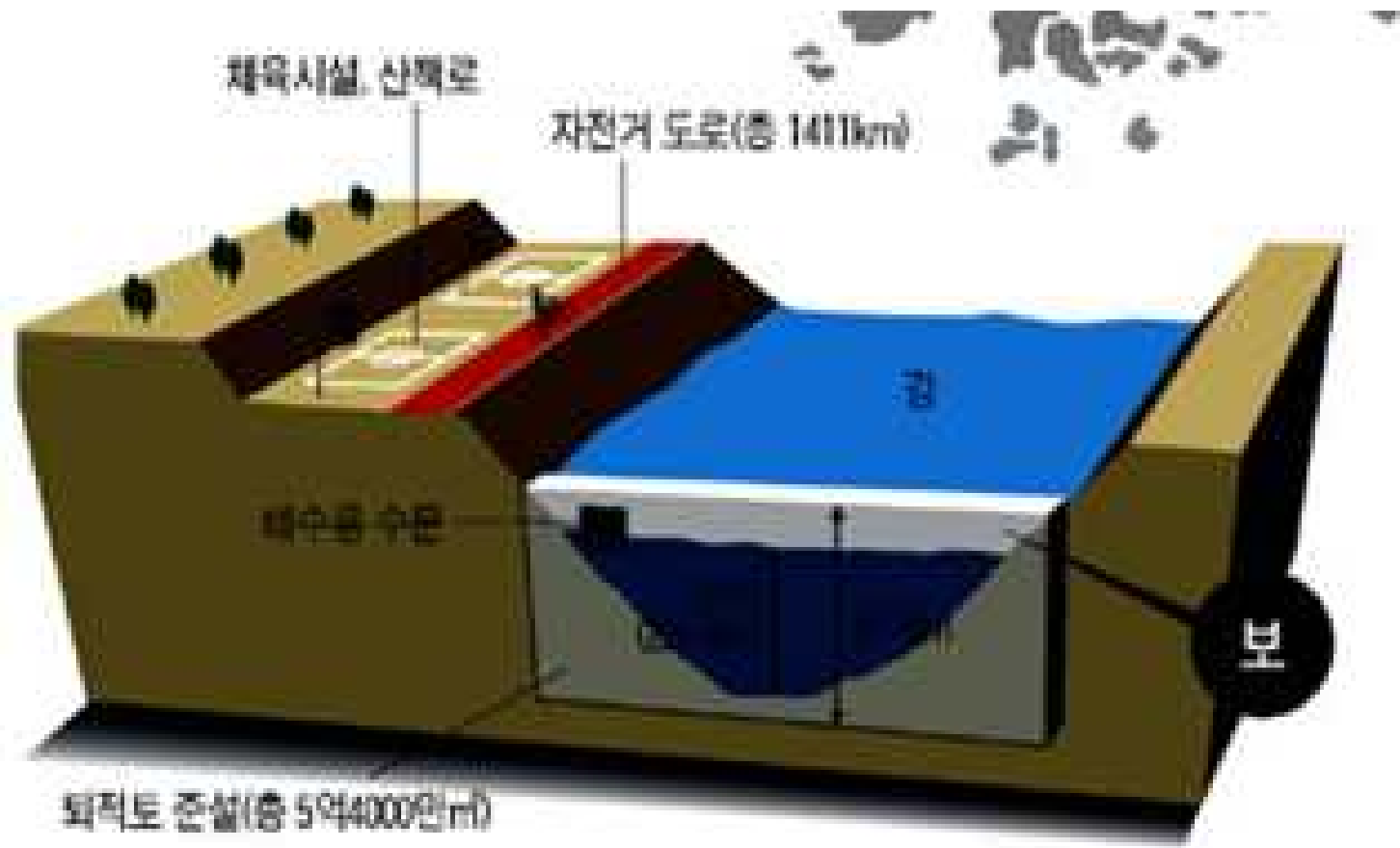


마곡
워터시티



여러
레저
시설

4대강 사업 이후 강의 모습



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?

- 안정된 식수 공급을 위해 댐 증설 및 기존 하천 취수 지역 이동
 - 기존 경북 지역에 건설 중인 댐을 조기 완공(3개 댐). 2개 댐 추가 건설(영주, 보현). 안동댐-임하댐 연결.



- 쉬어가는 동영상



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안보

-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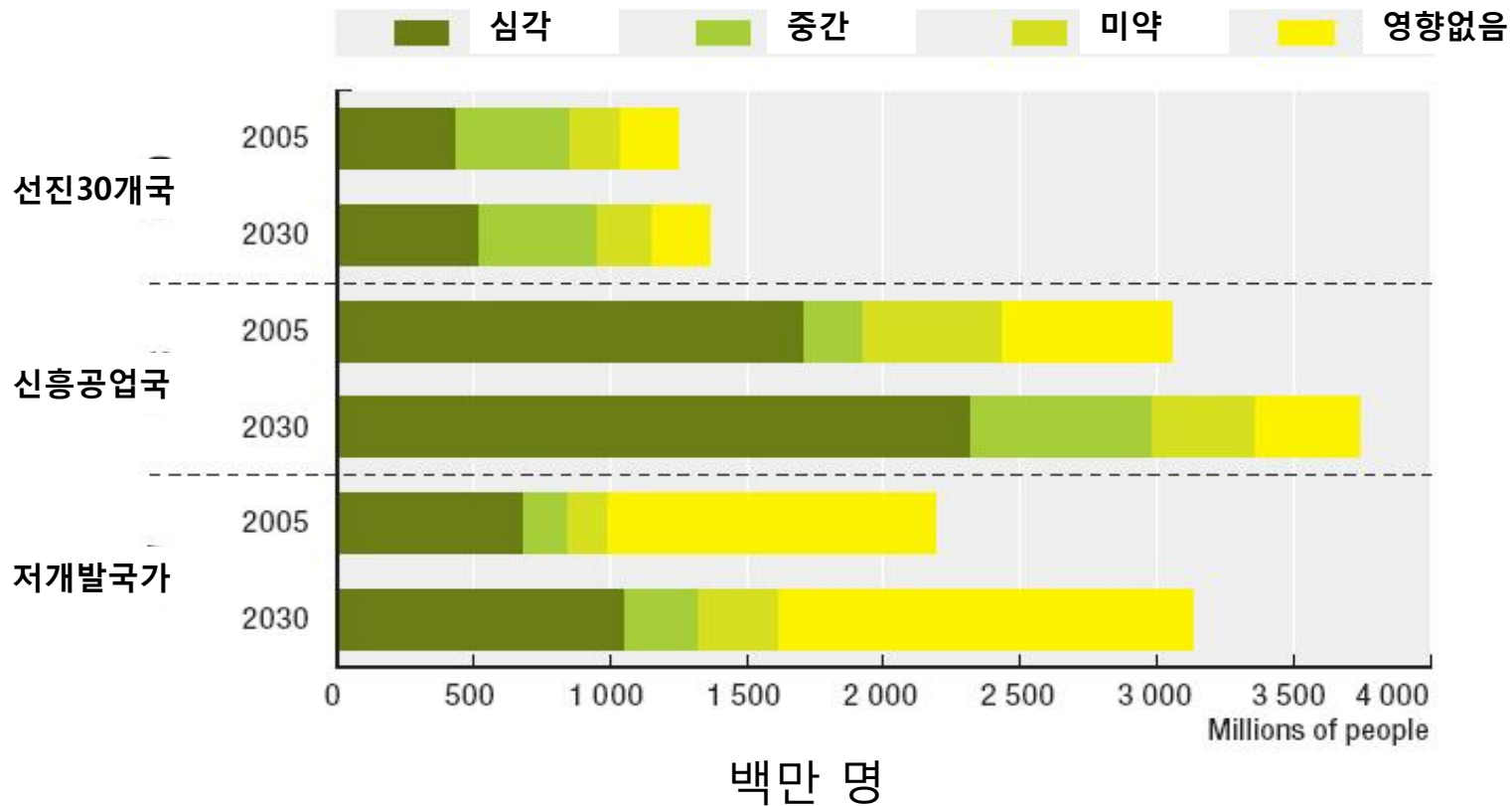
09년 2월 태백 일대 겨울 가뭄으로 말라버린 하천



09년 7월 홍수로 잠긴 하천 일대 논밭

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안보

- 2009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 중 하나는 “Water Shock!”
 - 70년대 오일쇼크를 차용한 개념. 기후변화로 인해 물이 석유 이상 비싸지는 워터쇼크(물충격)가 10년 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.



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안보

- 한국은 아직 심각한 물 부족 상태는 아님.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낙관적 예상만 할 수는 없는 상황
 - 현재 약 4억 톤 정도가 부족하나, 일시적으로만 존재.
 - 2020년에는 4.4억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.

- 기준수요 (단위: 백만㎥)

구분 \ 년도	2006	2011	2016	2021	
■ 용수수요량	34,378	35,498	35,800	35,568	
- 생활용수	7,877	8,103	8,180	8,135	
- 공업용수	2,787	3,178	3,562	3,422	
- 농업용수	15,977	15,849	15,690	15,583	
- 유지용수	7,737	8,368	8,368	8,368	
■ 용수공급량	33,975	35,158	35,300	35,129	
■ 과부족량	전국	403	340	500	439
	지역별	846	797	975	925

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안보

- 물 부족 사태는 빈곤 지역일 수록 심각.
 - 대도시 지역과 달리 지역 영세 도시, 농어촌 지역은 안전한 식수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.
 - 물의 양극화가 계속 심화

제한급수지역 현황

2007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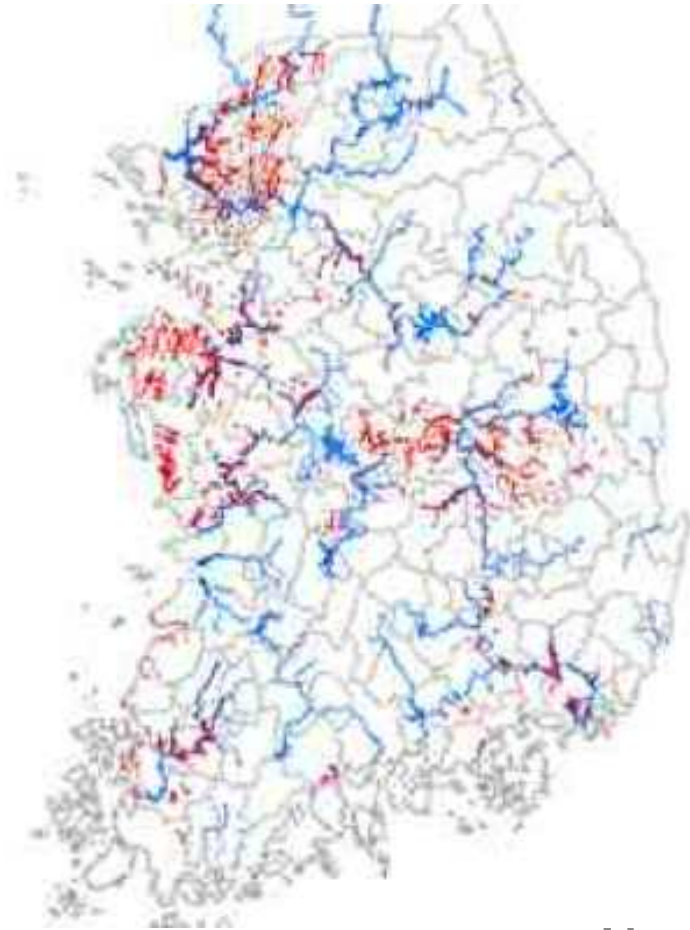
시·도	과거 가뭄발생 시 2회 이상 제한급수를 경험한 시·군	시	군
강원도	속초시, 원주시, 춘천시, 고성군, 영월군, 철원군, 홍천군, 화천군, 횡성군	3	6
경기도	안성시, 파주시, 화성시, 여주군	3	1
경상남도	거제시, 마산시, 양산시, 통영시, 거창군, 남해군, 의령군, 하동군, 함양군	4	5
경상북도	경주시, 문경시, 상주시, 안동시, 영천시, 영양군, 울진군, 의성군, 청송군, 봉화군, 칠곡군	5	6
충청북도	제천시, 청주시, 충주시, 청원군, 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	3	6
전라남도	광양시, 나주시, 여수시, 해남군, 보성군, 무안군, 신안군, 완도군, 장흥군, 진도군, 강진군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	3	11
전라북도	김제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순창군, 진안군	3	3
계	총 62개 시·군	24	38

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안보

- 집중 폭우도 늘어나고 있음. 하지만 여러 시설 보강으로 피해액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음.

<홍수발생에 따른 침수면적 현황('84~'00년)>

권역	침수면적(km ²)
한강	322
낙동강	340
금강	478
섬진·영산강	345
임진강	267
계	1,752



기후 변화와 한반도 물 안보

-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질 개선도 홍수 예방도 악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큼.

하도 준설로 인한 오염 퇴적토 유출
보 건설로 인한 유속 저하
하천 주변 각종 레저 시설 건설
댐 중심 급수 체계로 식수 자원 불안정

수질 악화/ 환경파괴

홍수에 취약한 지천에 대한 투자 부족
보 건설로 인한 상류 지역 피해 확대

홍수피해 확대

4대강 사업의 영향 - 하도 준설

- 하도 준설로 인한 오염 퇴적물 문제
 - 강바닥을 4~5m 이상 파내는 데 퇴적물 오염도 조사 전무
 - 70~80년대 중금속, 농약,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 있음



금호강 하류 달성보/함안보 오니 퇴적토에서 7개 중금속 검출. 독극물인 비소와 수은이 기준치 초과.

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 발견

4대강 사업의 영향 - 하도 준설

- 미국 허드슨 강의 예
 - 조사 기간 7년. 샘플 채취 5만 곳 이상 하며 준비
 - 하지만 준설 공사 중에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닐 예상치의 25배 이상 방류. 공기 속으로 방출된 발암물질 역시 기준치의 105배.
 - 오락방지막 효과 미비.

제너럴일렉트릭 관계자

“최선의 준설기술과 관리기법을 총동원했지만 환경보호청이 전한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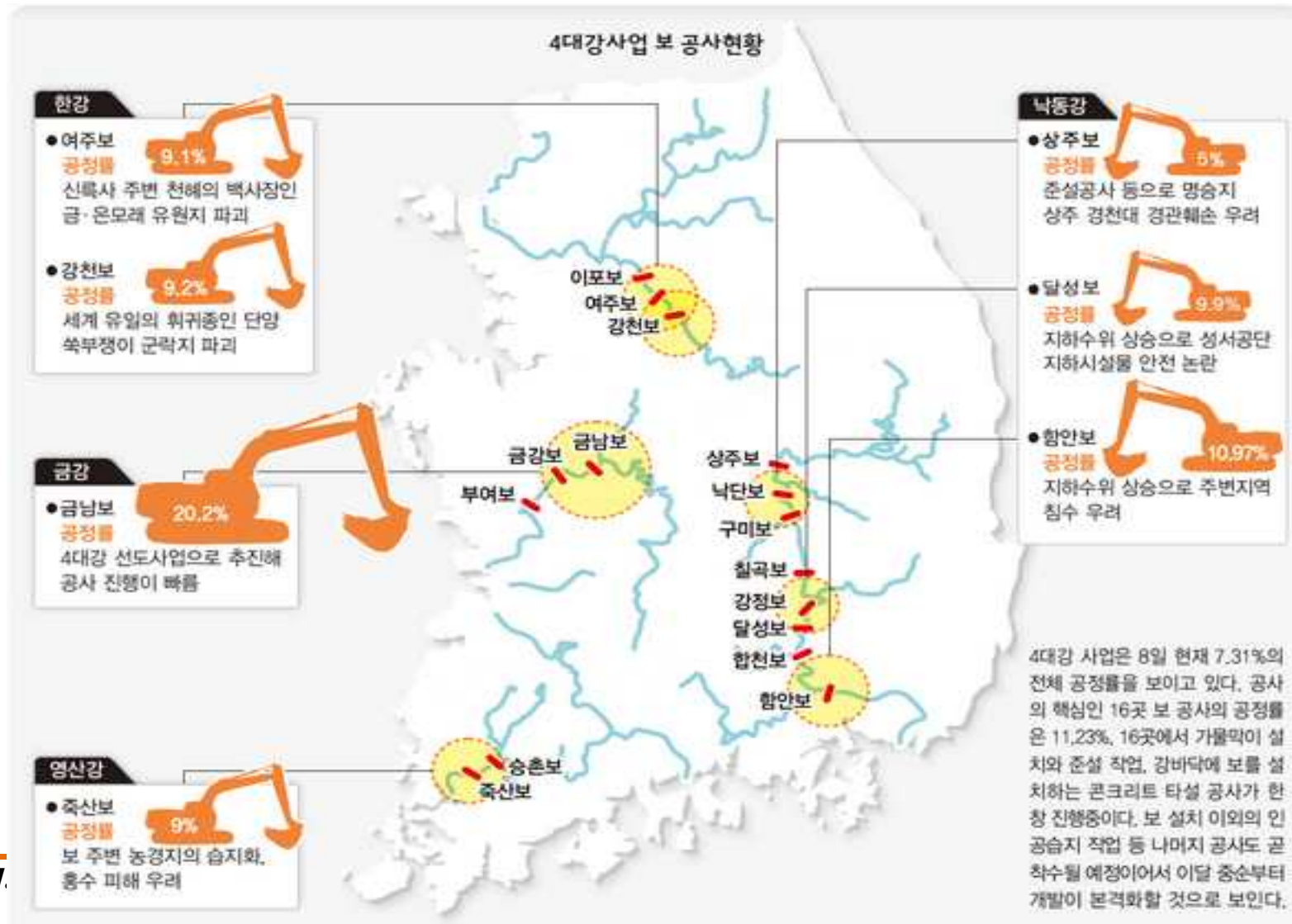
4대강 사업 영향 - 하도 준설



- 팔당 일대에서 취수 중인 약 1500만 수도권 인구 식수 문제 발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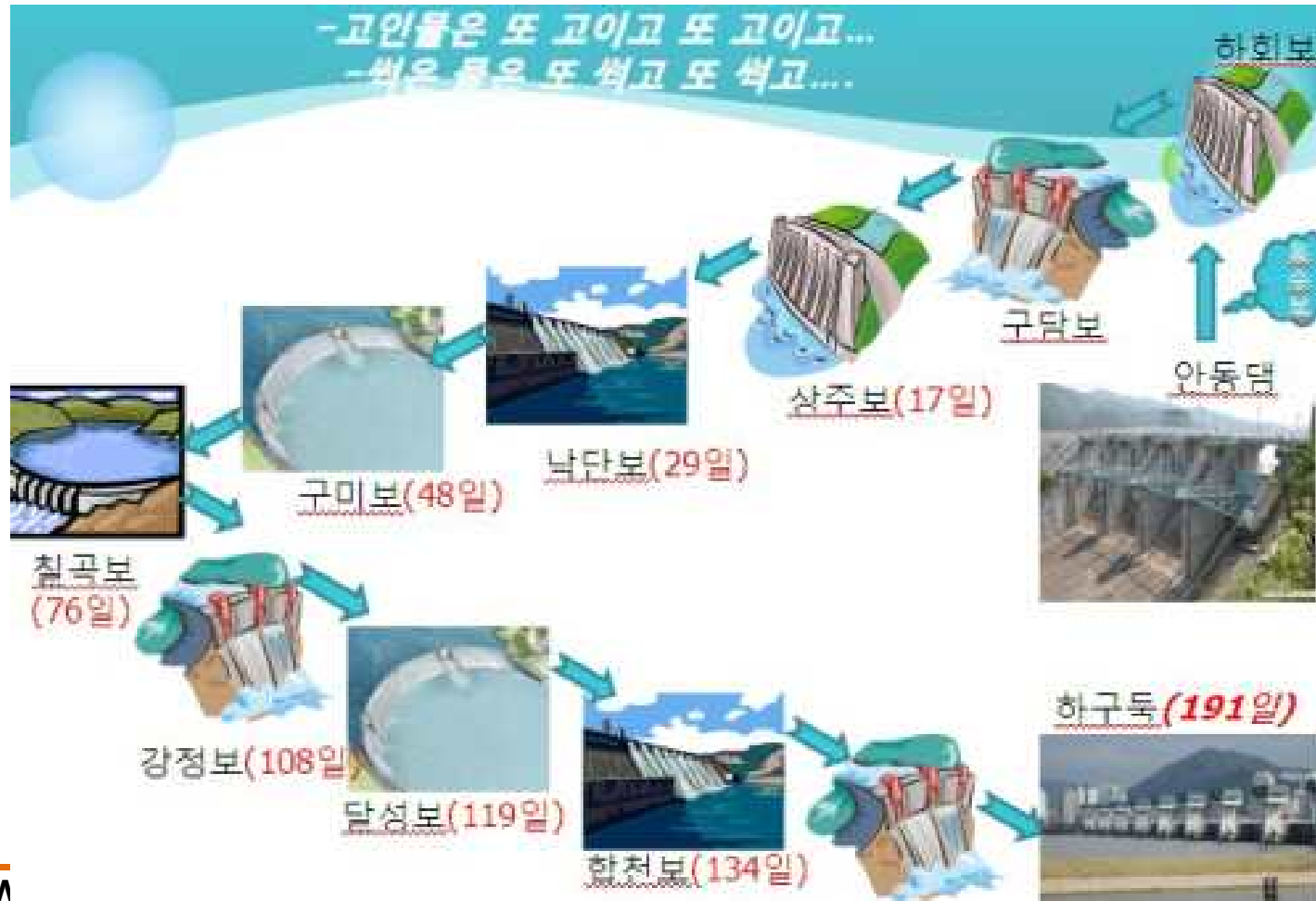
4대강 사업 영향 - 보 건설

- 소형 댐에 가까운 보 건설로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파괴



4대강 사업 영향 - 보 건설

- 낙동강 유속 최대 40배 이상 느려짐
 - 강이라기보다는 거대 호수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(고인물은 썩는다)



4대강 사업 영향 - 보 건설

- 영산강은 아예 썩은 호수가 될 수도
 - 영산강은 현재도 5급수로 최악
 - 취수를 포기한 90년대 이후 영산강 수질 관리 하고 있지 않음
 - 축산 폐기물, 낙후한 하수처리 시설 등 그대로 두면 썩은 호수와 같아질 것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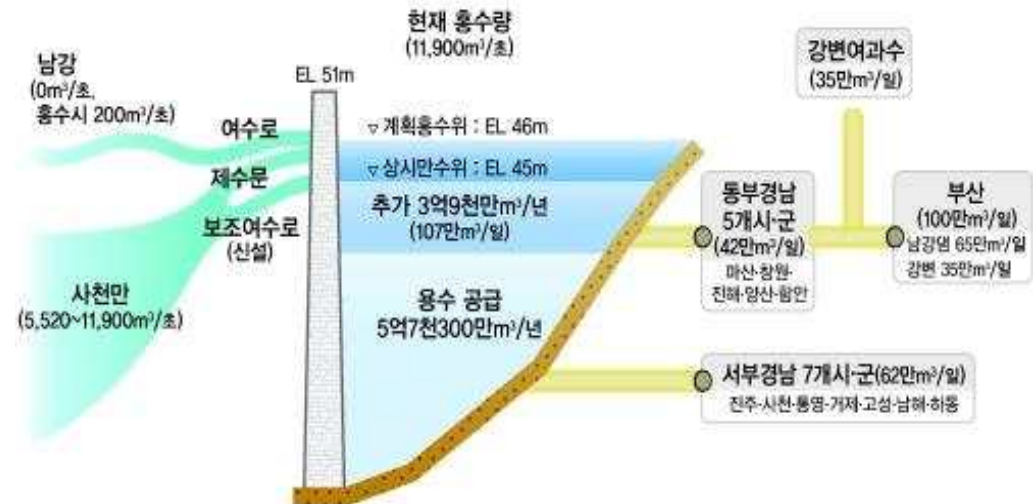
총인 0.05만 되어도 썩을
가능성이 있음

4대강 사업 영향 - 취수원 이전

- 강 오염으로 대규모 취수원 이전이 예상
 - 하천 취수를 포기하고 상류 지역 댐으로 이동
 - 식수원 획일화로 인한 사고 위험과 동시에 가뭄 등에 매우 취약



남강댐 용수증대사업 개념도



4대강 사업 영향 - 취수원 이전



4대강 사업 영향 - 취수원 이전

- 먹지 않는 하천은 관리를 하지 않아 급속하게 오염
 - 90년대 영산강 사례
- 댐만 의존하다가가는 가뭄 등에 매우 취약
 - 2009년 태백 가뭄 사태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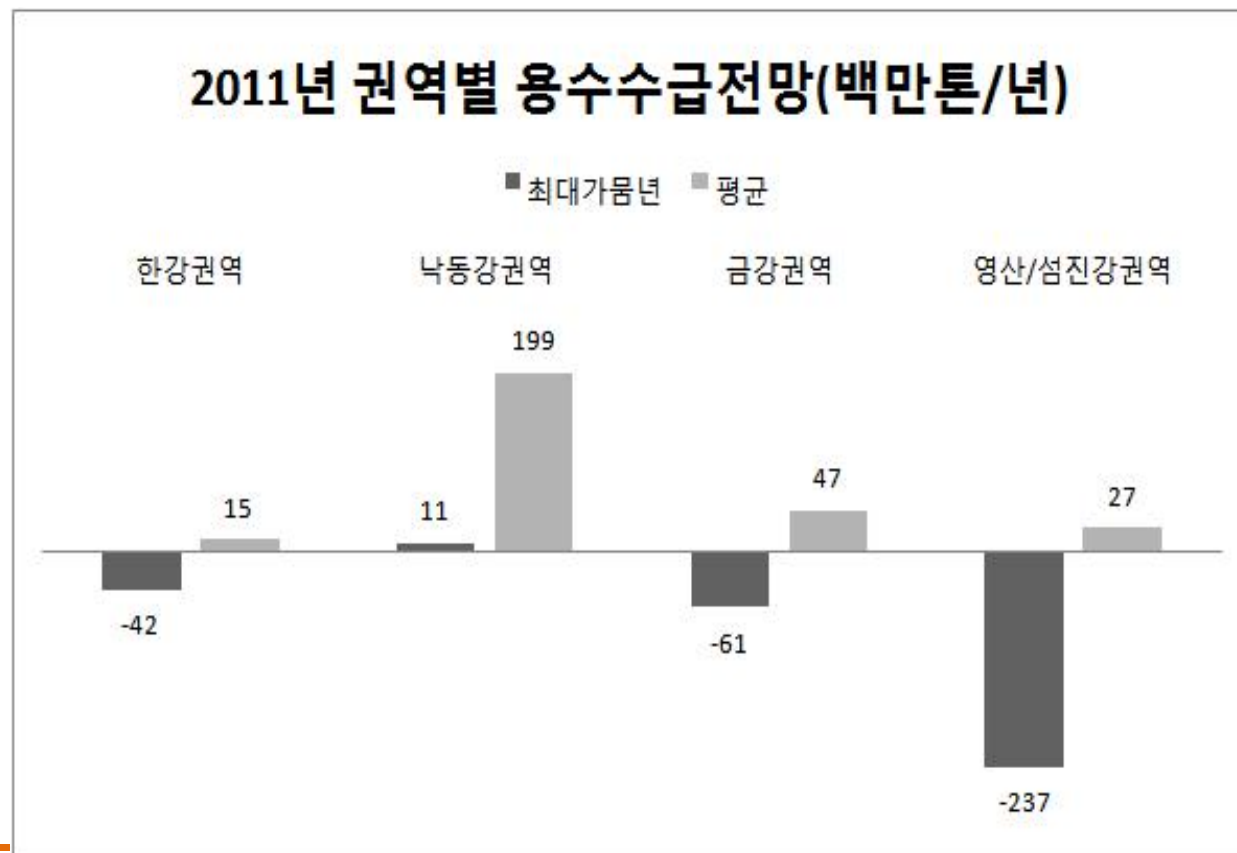
영산강에서 그물로 퍼올린 오염원들



말라버린 광동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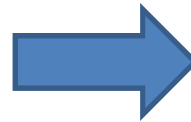
4대강 사업 영향 - 취수원 이전

- 하천 취수 포기는 장기적인 물 안보 위협
 - 영산강/섬진강 사례
 - 섬진강 댐으로 집중한 이후 매년 용수 부족



4대강 사업 영향 - 농민 생존권

- 팔당 인근 유기농 단지 철거
 - 남양주, 양평, 광주 등 약 200여 유기농 가구 철거
 - 수도권 최대 친환경유기농 단지(친환경농산물 시장의 60% 생산)
 -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유기농 단지 철거하고 제방 및 자전거 도로 건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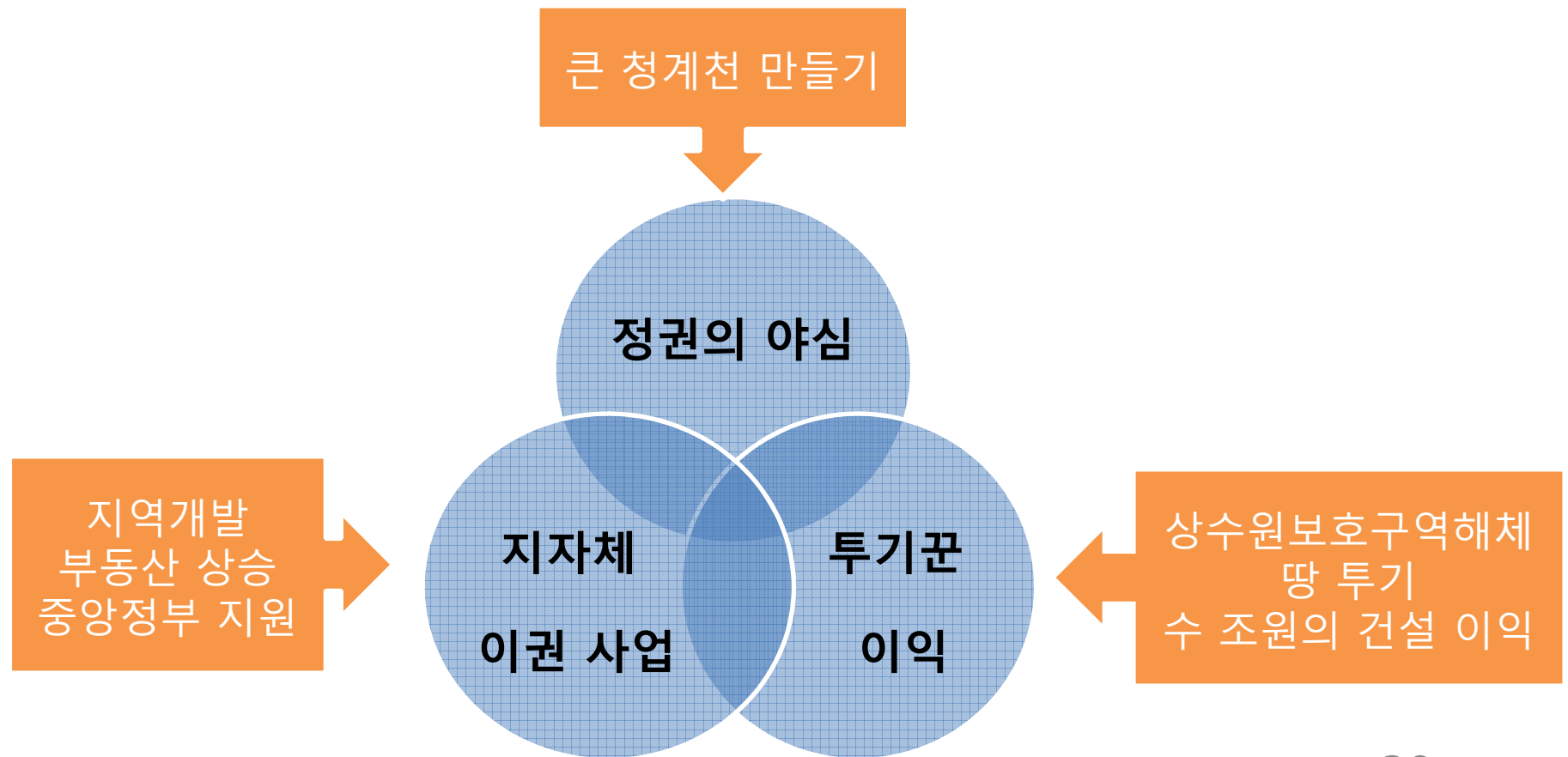
4대강 정비 사업과 대운하

- 이명박 정부 도대체 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나?
 - 4대강 사업은 사실 대운하 사업과 다른 점이 거의 없음

대운하	정비사업
수로	하도정비, 제방보강
운하용수	댐, 농업용 저수지 홍수조절지
갑문	배수갑문, 자연형 보
환경복원	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

4대강 사업과 대운하

- 어떠한 힘이 4대강 사업(대운하)를 움직이나?
 - 막대한 개발 이권을 노린 투기꾼들과 정권의 성공 사업 만들기 욕심



4대강 사업과 대운하

- 정권의 무모한 개발 사업과 환경 파괴
 - 이미 새만금에서 경험한 바 있음
 - 1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 세계 최고 갯벌만 파괴하고 용도도 불명확한 간척지 개발
 - 1991년 노태우씨가 정권 재창출 전략으로 무리하게 추진



4대강 사업과 노동자

- 환경 파괴, 수자원 파괴 사업에 사용되는 재정
 - 현재 추정 22조 2천억 원
 - 2009년 초 13조 9천억 원에서 60% 증가
 - 정부 토목 공사의 특징은 예산의 50% 이상 증가한다는 것(총 33조?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수량	사업비
1. 준설	5.7억m ³	51,599
2. 보 설치	16개소	15,091
3. 생태하천	537km	21,786
4. 제방보강	377km	9,309
5. 댐, 조절지, 낙동강하구둑	6개소	17,241
6. 농업용저수지, 영산강하구둑	88개소	27,704
7. 수질대책	1식	5,000
8. 기타	-	21,768
합 계		169,498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수량	사업비
1. 준설	4.5백만m ³	265
2. 수중보	1개소	110
3. 생태하천	392km	9,358
4. 제방보강	243km	6,856
5. 농업용저수지	9개소	1,471
6. 수질대책	1식	33,837
7. 기타	-	607
합 계		52,5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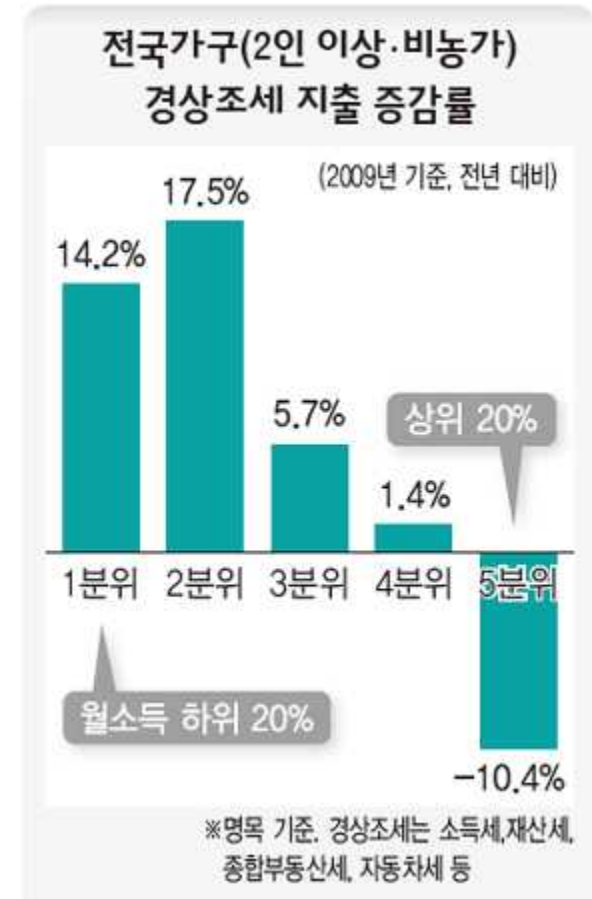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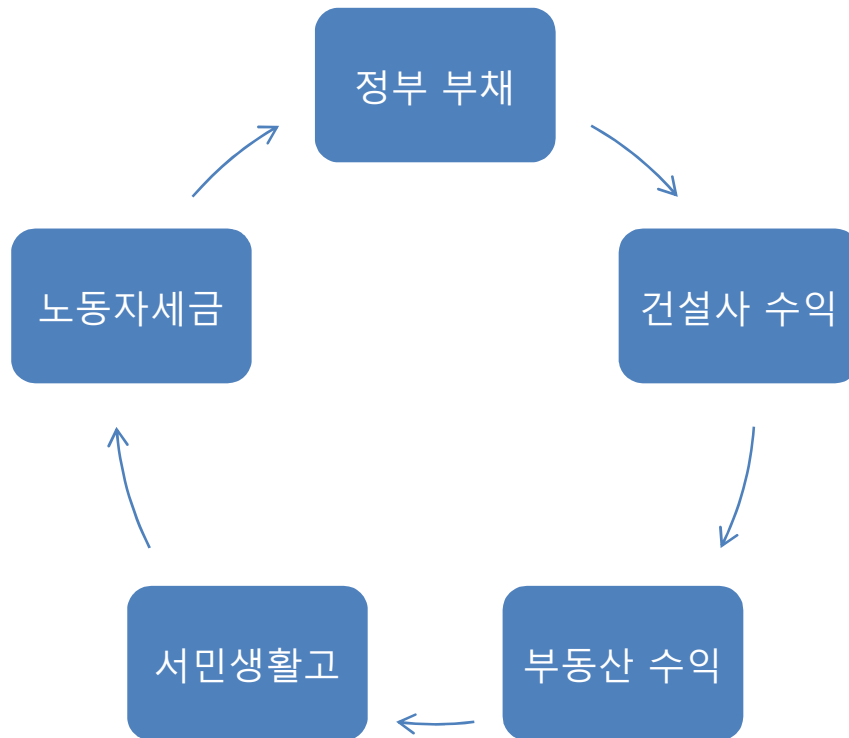
4대강 사업과 노동자

4대강 사업으로 줄어드는 예산

반서민 예산	증감(율)	'09추경→'10예산
① (교육)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삭감	△3,686억, △33.6%	1조 975억→7,289억
② (복지)기초생활보장 감액	△2,589억, △3.2%	7조9,731원→7조7,142억
③ (중소기업)중소기업청 예산(일반회계) 최악의 삭감	△3.5조, △71.4%	4.9조→1.4조
④ (중소기업)신기보 출연금 전액삭감	△2.7조, △100%	2.7조→0
⑤ (지방)지방정부 지원 대폭삭감		
○ (지방)지방교부금 삭감	△850억원, △0.3%	26조5,684억→26조4,834억
○ (교육)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	△2조2,502억원, △6.9%	32조6,511억→30조4,008억
⑥ (농민)화학비료가격지원 전액 삭감	△1,508억, 100%	1,508억→0
⑦ (지방)도로·철도 예산 대폭 삭감, '08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	△4.6조, △31%	14.6조→10조
⑧ (지방)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	△2,826억, △58.9%	공단요구액 4,801억 →1,975억
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	△2,869억, △34.7%	8,258억→5,389억
⑩ (지방)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	△2,889억, △41.9%	6,889억→4,000억

4대강 사업과 노동자

- 결국 노동자의 돈으로 환경파괴, 투기꾼 배 불리는 사업
 - 복지 예산 감축은 물론 부자 감세, 노동자 증세
 - 약 9조원 이상 건설 노동자에게 중간 착복



4대강 사업과 노동자

- 노동자가 앞장서서 4대강 사업 막아내야

